



속보: 2011년 12월 1일

**CUOMO 주지사,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에 운전 중 문자 전송 위반에 대해 800 건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발표**

***휴대용 장치의 불법 사용에 대해 운전자에게 816 건의 벌금 고지서 발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경찰이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에 운전 중 문자 전송 위반에 대해 816 건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약 330 건의 벌금 고지서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던 강력한 캠페인인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Up)” 위반에 대해 발부되었습니다. 주 경찰이 일상적인 순찰을 하는 동안에도 추가로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1월에서 6월 사이에 월평균 약 429 건의 벌금 고지서가 운전 중 휴대용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발부되었습니다. 7월에 새 법안이 통과된 이후 1,000 건 이상의 벌금 고지서가 매월 발부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5일 동안 800 건 이상의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었다는 것은 휴대용 장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욕 시민을 보호하고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휴가 기간에 산만한 운전을 단속해준 뉴욕주와 지역 법률 집행기관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교통 안전 위원회(Traffic Safety Committee)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관리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산만한 운전 집행 기금(Distracted Driving Enforcement Grant)을 통해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Up)”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주 경찰은 산만한 운전에 대한 순찰자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그들의 관례적인 교통 안전과 시행 노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하게 강력한 법률 시행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oseph A. 뉴욕주 경찰의 D'Amico 국장은 “이 강력한 법률 시행 기간에 운전하는 동안 순찰대는 무선 장치를 사용하여 신규 법률을 무시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운전자들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앞으로도 뉴욕 고속도로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만한 운전을 줄이는 법률을 집행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의 Barbara Fiala 국장은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Up)는 뉴욕주 운전자들에게 다른 운전자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산만한 운전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향후 시행 캠페인을 통해 전체 뉴욕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7월에 운전 중 문자 위반을 강화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운전 중 휴대용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문자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교통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경찰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운전자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추가로, 운전 중 휴대용 장치 사용에 대한 벌점은 2 점에서 3 점으로 올랐습니다.

###

추가 뉴스는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